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
남성구역예배 · 고린도전서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 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그의 발자국 소리

새해를 시작한지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달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십여 년만에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로 길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는 겨울날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길을 더듬거리면서 올라오던 신실한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이들의 입에서 뽀얗게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일 주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도 추위 아랑곳없이 영혼을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분은 강렬한 햇볕 때문에 모두가 쉬던 대낮에도 그 열기 등에 이고 팔레스타인의 황무지를 걸어다니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미끄러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러 오시겠지요.

주께선 어느 곳이든, 주를 그리워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두드리시듯,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2월에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은 본래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기도의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시편들은 유대 민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매개였던 경배 및 예배용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①슬픔의 시(3-7, 9-10, 22, 32, 42-44, 51, 60,94, 102, 137편), ②감사의 시(18, 30, 32, 34, 56, 75, 107, 118, 138편), ③찬송의 시(19, 47, 92, 96, 103, 105, 111, 113-114, 117, 146-150편)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범주는 모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율법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43:21)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고백과 아울러 시편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그를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와 더불어 시편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된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시 22:1; 막 15:34)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시 110:1; 행 2:31-36)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8, 22, 40, 45, 110편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예언적이거나 메시야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의 전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구자들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찬양들, 탄원 시들, 교훈 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시들을 그들의 삶과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우주적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1. 사람과 창조에 관한 시편 (1~41편)
2. 이스라엘과 구속에 관한 시편 (42~72편)
3. 예배와 성전에 관한 시편 (73~89편)
4. 우리의 지상 체류에 관한 시편 (90~106편)
5.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107~150편)

• 각 부문은 각기 찬양 송영으로 끝나며(41, 72, 89, 106편), 마지막 부문에는 송영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145~150편)

1 (목) 나를 도우소서

본문/ 시12편 찬송/ 349장

성경에 보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하면 많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딤후3:12).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행14:22). 시편의 기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8절).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욱 잘 되고 있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 의인들이 실족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도와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첨하는 자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2-4절). 허위로 사는 사람이 잘되니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도리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일삼으며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며 사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1절).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아니합니다(고후11:23-28).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핍박 가운데서 나를 도우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환난과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10: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외부적인 적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습니다(3절). 영적 눈이 어두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 할까 두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려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둘째, 원수가 승리할까 두려워했습니다(4절). 다윗은 원수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수를 꼭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셋째, 요동칠까 두려워했습니다(4절). 원수가 잘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면 곤란합니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릴 지경인데 영원히 승리한다면 참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워 한 것입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내 중심을 굳건히 붙잡아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3 (토) 어리석은 사람

본문/ 시14편 찬송/ 378장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1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20-2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둘째,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1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극도의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대문에 현세에서 즐기자는 것입니다. 고후7: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셋째, 악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1절). 사람이 부패한 결과는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더러운 생활을 하며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없고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더욱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의 집에 거할 자 (주일) 4

본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첫째,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1-2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로 올바른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2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미가6:8절에 이르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십일조는 인정하셨지만 공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셋째, 참소치 말아야 합니다(3절). 말로 남을 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먼 사람에 이르기까지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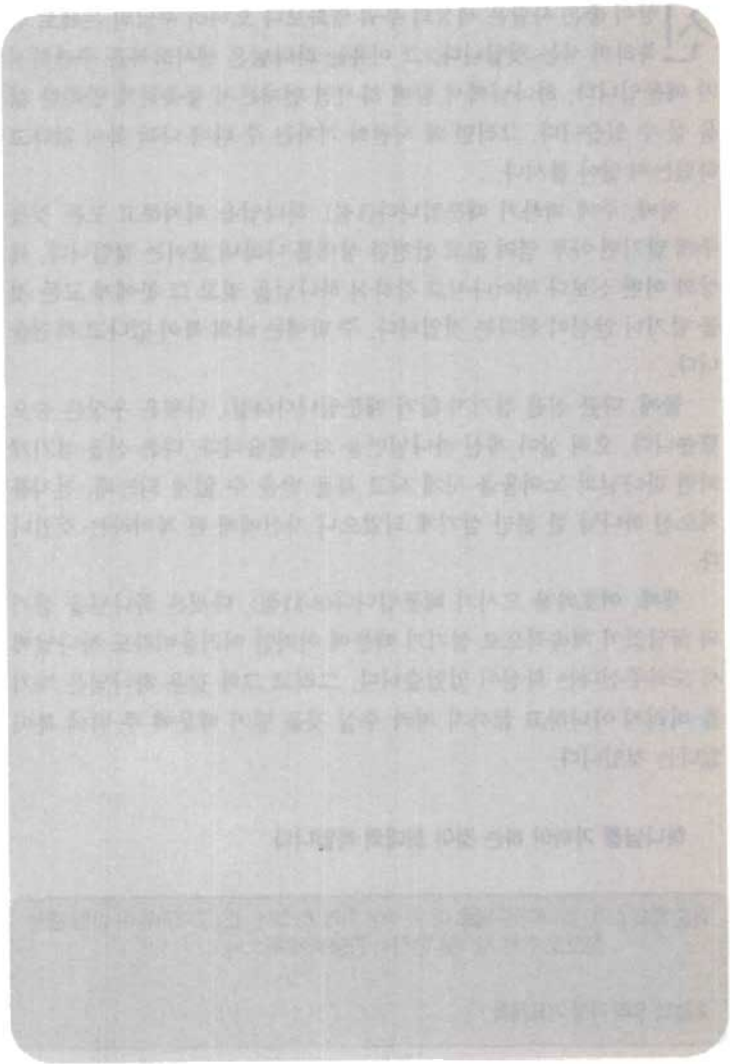
정직과 공의를 행하며 참소 대신에 축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온전히 주관해 주옵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제목 :옛적 길 본문 : 렘 6:13-16



5 (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본문/ 시16편 찬송/ 450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풍족하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편의 기자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는지 알아 봅시다.

첫째, 주께 피하기 때문입니다(1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아무 염려 없고 안전한 상태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4절). 다윗은 우상은 증오했습니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었으니 자신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입니다(8-11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 밖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간을 당하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위기를 피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홀로 고독 속에 머물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믿는 성도는 위기의 시간에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7절)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당함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았다는 성실함에 있을 것입니다.(5절) 그러한 기도자의 삶을 하나님 자신이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3절) 그러나 자신의 이러한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왜 악은 계속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이 마치 사자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12절) 과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가요? 악인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부하게 잘 살고 그 자손들에게 까지 재산을 물려 주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14절)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그 결국을 알게 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이 그대로 흘러 갈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누가 진짜이고 아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그때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 / 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7 (수) 성도의 승리

본문/ 시18편 찬송/ 217장

이긴다는 것은 참 기쁜 일 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입니다. 상대방의 흑색선전을 비롯하여 서로가 오십보 백보의 모습을 보이며 치열하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승리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승리하게 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즐겨 성구에 적기도 하는 1, 2절의 내용은 '나의'라는 소유격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원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29절)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31절)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19절) 시편은 구원을 단지 이 땅에서의 구원에만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오히려 구원이라는 세상의 단어와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영원을 바라 봅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50절) 그분은 시간을 뛰어넘으십니다. 오늘, 이 세상, 현실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기도 제목 / 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완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되고 싶은 사람이 수퍼맨이었고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완전에 대한 갈망은 타락 이전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숨겨진 종교의 씨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7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이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12절) 완전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를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인간의 편에 맞추는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주의로 변화되고 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14절).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 오직 예수의 보혈과 그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 2:5)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오늘도 나의 부족을 채워주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9 (금) 하나님의 이름

본문/ 시20편 찬송/ 326장

돈이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 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들이 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믿는 구석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특한 이름을 의지합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명칭의 본질과 같습니다. 이름은 오늘날처럼 단지 호칭에 불과하지 않고 인격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 (1, 5,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전쟁이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기타 다른 민족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7절).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2절) 마음의 소원, 모든 도모를 이루실 것입니다(4절). 중요한 것은 성소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겸손히 남을 섬기기보다는 남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권력의 정점이 왕이라는 직책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왕이 되고픈 꿈을 꾸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위에 왕이 존재함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오른 다윗은 자신 위에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왕의 권위나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1절)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은 왕이 아니라 마치 연약한 양과도 같습니다.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어린 양. 왕으로서의 교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자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되면 전세계가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교만을 낳게 됩니다.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든든한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7절) 진정한 행복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내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1 (주일) 승리와 평화의 나라

본문/시22편 찬송/182장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의지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 즉 참된 승리와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너무나 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6~8, 12~18절) 그는 이 고통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3~5, 9~11, 19~21절) 결과는 다윗 곧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하여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 후 그는 승리의 나라에서 자신과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 선포합니다.(22~31절)

그런데 과연 이러한 승리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의 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마27:46) 따라서 이 시편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언한 예언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되시고 만주의 주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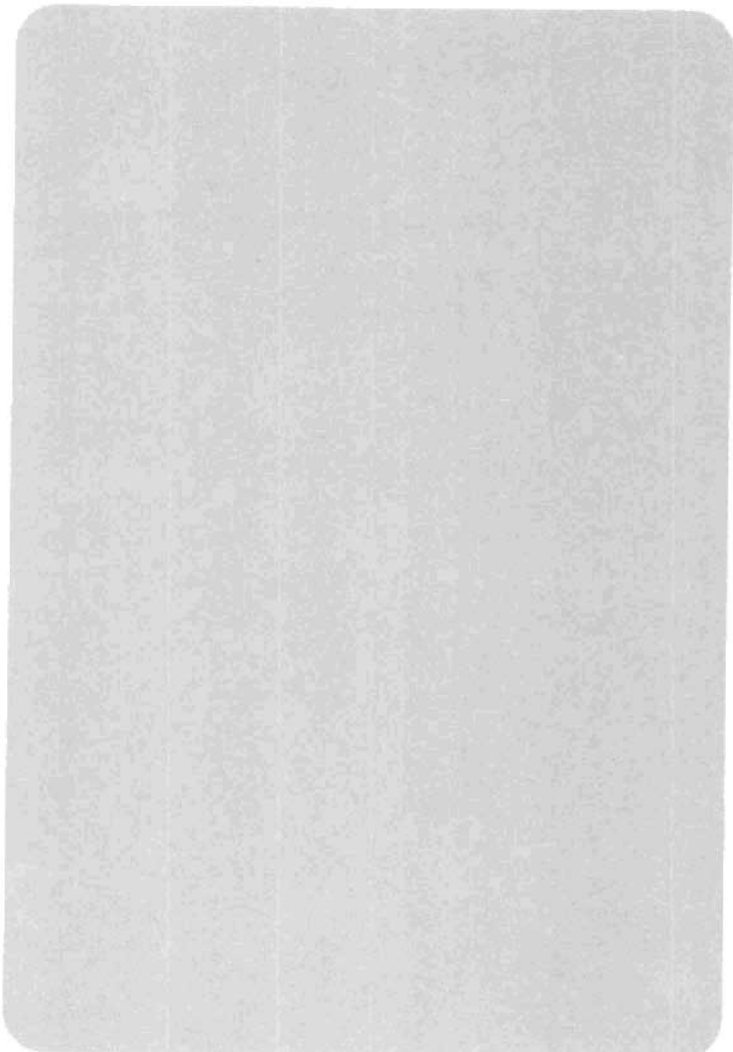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승리와 평화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승리와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일설교 노트 2월 11일

제목 : 쓸데없는 슬픔 본문 : 막 16:10-11



성도란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의지합니까?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찬송시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유는 자신의 모든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절) 먼저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2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란 세상의 것에 국한되는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삶의 진정한 만족과 자족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바른 의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영혼이 침체될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3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원수 즉 세상과 마귀 앞에서 하늘의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5절)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므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4절) 그리곤 자신은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고백합니다.(6절)

이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목자로 모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성도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3 (화) 영광의 왕되시는 하나님

본문/시24편 찬송/21장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경배해야 하는 참된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벧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찬양시입니다.(삼하6:12~19) 다윗은 이 찬양시를 통하여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천하만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만물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1~2절)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분 역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의의 수여자가 되십니다.(3~6절)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법궤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셨는데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는 말하기를 영광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을 향하여 천하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7~10절)

영광의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삶을 통하여 오직 영광의 왕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4 기도의 축복 (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 중 그 한 가지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대화이며 또한 성도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신실한 기도자였습니다. 결코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간절했으며 온전했습니다.(1절, 5절) 그에겐 원수들로 인한 고통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2, 3절) 또한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며(7, 8, 11, 18절) 외로움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역시 간구했습니다.(16, 17절)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의와 진리의 삶을 살도록 도우심을 구했으며(4~6, 9, 10절) 죄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했습니다.(20, 21절) 더 나아가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2절) 이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와 더불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참된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5 (목)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본문/시26편 찬송/384장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악한 자들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주석가들은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을 때 이 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겐 권세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힘으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온전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먼저 믿음 안에서 행한 자신의 삶에 대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합니다.(1절)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평가할 것을 구합니다.(2절) 자신은 언제나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였으므로 무죄하다고 호소합니다.(3~6절) 다윗은 지금 악한 자들이 힐난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무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7~11절) 다윗은 승리케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맺습니다.(12절)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도우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공의로우신 아버지여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 속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일평생 정적들의 도전과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곤고하고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며 의지했습니다. 적당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으며 생명과 같이 결사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빛, 구원, 생명의 능력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1절) 환난날에 숨기시고 지켜주셨음을 간증합니다.(5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한 자신을 영접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10절) 그는 이러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습니다.(14절)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입으며 살기를 앙망하였습니다.(4절) 이렇게 여호와를 믿고 앙망하는 다윗에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궁전에서 평안히 있을 때나 원수들의 칼을 피해 광야와 동굴에 숨어 있을때나 그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죄악의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7 (토) 위기를 맞는 태도

본문/시28편 찬송/383장

인생은 환난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황혼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도망 다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전 인격적인 위기였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천하의 정복자요, 위대한 통치자이지만 친자식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치욕과 고통은 말로 형언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다윗은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권위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위기를 벗어날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주로서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6절) 아주 옛날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하셨던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고 찬양합니다.(7-8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유도 보여줍니다.(9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먼저 실망 좌절부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을 살피며 이 땅에서 도울 자를 찾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위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 주시지 않는 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본 시에서 시인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산천을 진동시키는 뇌성과 번개 그리고 강풍 등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발견합니다.(3-9절) 시인은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지 말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라고 선포합니다.(1-2절) 그리고 자연현상 중의 하나인 뇌성 등을 영광을 받으실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실증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뇌성 번개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능하신 여호와께 힘과 평강의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11절)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우리 인간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현대 과학이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며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밝혀 내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밝혀내면 낼수록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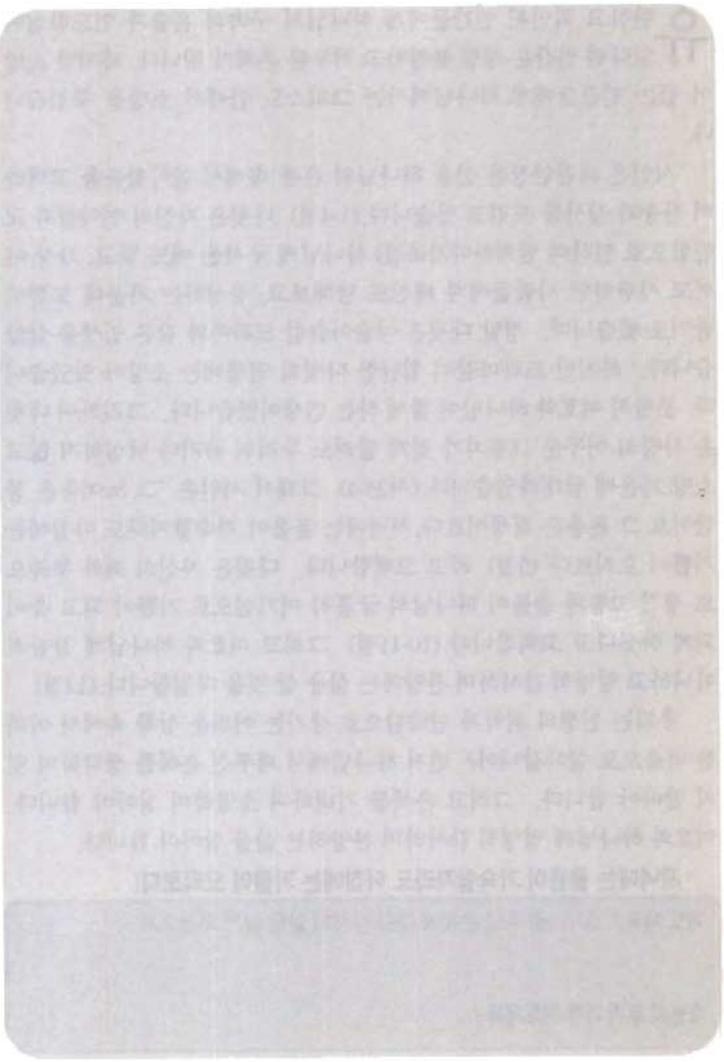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순간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일설교 노트 2월 18일

제목 : 내가 알기에는 본문 : 욥 19:25



19 (월)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본문/시30편 찬송/535장

유한하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인간은 정말 불쌍하고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인은 파란만장한 삶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1-4절)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범죄하다가(6절) 하나님께 무서운 매도 맞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충성하는 가운데 모함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아슬아슬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같이 험난한 다윗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도 두려워 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였습니다.(시23:4) 그래서 시인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5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부족으로 생긴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10-11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잠잠치 아니하고 영영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12절)

우리는 인생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생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영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원의 간구 (화) 20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을 만날 때면 두려워 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좌절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시는 다윗이 지금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고로 받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눈과 뼈가 쇠합니다' '사망한 자' '깨어진 그릇'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10-12절)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공포와 경악 또는 좌절과 불평만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자신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5,15절) 다윗은 곤고함 가운데에도 끝까지 원수와 불의한 자들에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쳐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를 담대히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수단)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1 (수) 죄를 용서 받은 자의 행복 본문/ 시32:1-11 찬송/ 330장

고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다들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로 인해 고통받으며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너무도 사실적입니다. "내가 토설(吐說)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津液)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3,4절). 죄로 인해 야위어 가는 영혼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므로 평화도 없습니다. 위로도 없고 평화도 없으며 많은 슬픔만 있으니 진실로 악인처럼 되어버립니다(10절). 세상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6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할 때, 죄는 가리움을 받고 허물은 사함을 받습니다(1절). 하나님의 넓으신 가슴으로 꼭 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10절).

고백은 세상사람들에겐 정죄거리 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버지" 그 분에게는 그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는 울음소리와도 같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잠28:13; 요일1:9).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목) 22

인간의 삶은 간단치 않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고생하며 수고롭습니다. 기근과 홍수 같은 천재지변도 있고 사고와 위험, 전쟁과 같은 불운의 삶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갖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간의 양식을 좇아 지음을 받았습니다(창 1:27).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세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창1:3).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도 그의 말씀(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4-9절). 인간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시날 평지에서 언어가 갈리고 민족이 나누어지듯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를 인정하고 그 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 자기들의 사상을 도모하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에서의 삶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눠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분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19-20, 1-3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성호(聖號)를 의지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주어집니다(12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신앙인이 복됩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삶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가능함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② 권영일 단기선교사(수단)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컴퓨터학교 사역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3 (금) 체험으로 맛보는 하나님 본문/ 시34:1-22 찬송/ 441장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8절). 고난의 체험이 말로만 들었던, 글로만 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에 대해 오히려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난하려 하다가 그 앞에서 미친 체함으로 도망하게 되었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삼상 21:10-15 참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기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구사일생(九死一生)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6절). 그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합니다(11-22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15절, 벧전3:12 참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19절).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고후 5:8-9) 라고 한 말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으로 맛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 중에도 선하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편에 선 신앙인으로 살다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배신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고난이지만 사람들에게 느끼는 환멸감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보복에 대한 욕구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에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며 한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伸寃)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삼상 24:15).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그 옆에서 모함하며 부추기는 사람들. 평소에 믿고 사랑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11-16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선 까닭에 의로움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원칙들이 옳은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시는 저주와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원함을 구하는 억울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슬픔 속에 확신과 감사가 있다는 것(18절)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고난과 괴로움, 배신당한 분노를 신원함을 구하는 조용한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마음의 분노를 조용히 기도로 바꾸어가게 하소서서. ② 추진희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5 (주일)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기 본문/ 시 36:1-12 찬송/ 347장

세상에 함께 거하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요17:16) 그들이 바로 신앙인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을 볼 때마다 이 의로운 심령들은 상함을 받습니다(벧후2:8).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을 피해 달아나거나, 없는 듯 동화되고 말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절). 그들은 죄악을 꾀하고 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며, 양심의 거리낌도 느끼지 않습니다(2-4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인간의 영혼을 물들이고 있는 죄성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함없음 때문에 은총을 누리며 삽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5절). 그 분의 인자와 성실이 없다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6절). 결국 생명의 원천은 그 분께 있는 것입니다(9절).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10-11절).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12절).

이러한 사실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죄악이 횡행하는 현실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주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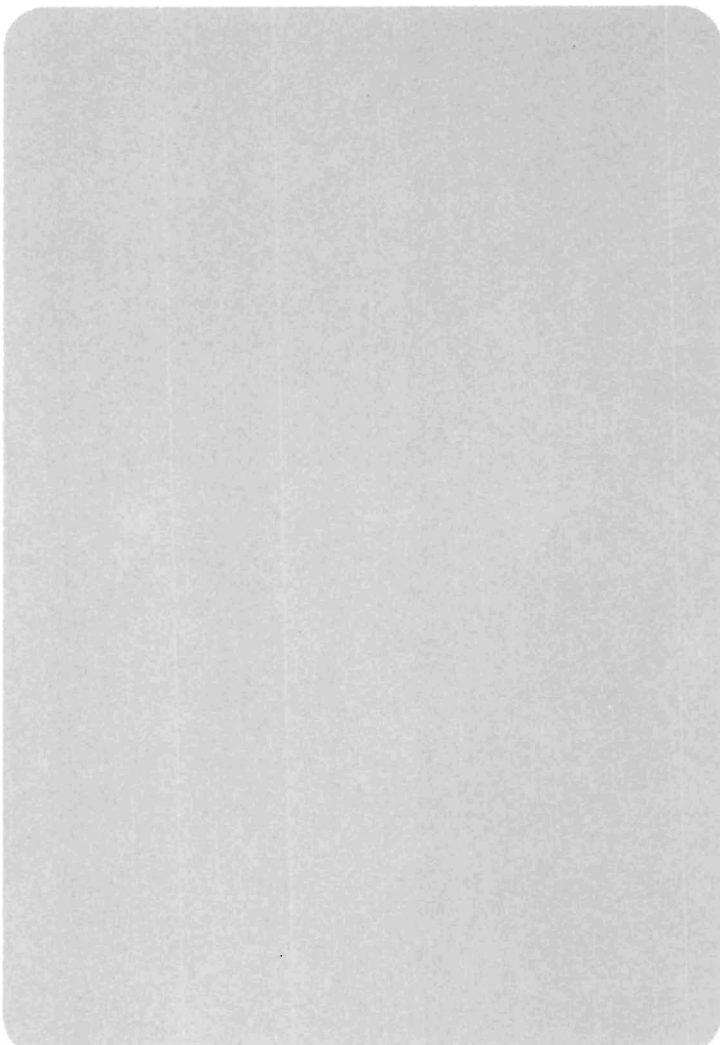
신앙인들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주류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수단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일설교 노트 2월 25일

제목 :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뇨? 본문 : 요 8:37



본시는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본시는 시 분류상 지혜시에 속하며 일부 교훈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들이 받을 축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통 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모순된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계속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른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과 번영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본시는 편의상 네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로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3절) 둘째 부분은 8절에서 20절까지로 불평하는 자와 악인의 종말(8절-10절), 온유한 자의 형통(11절-13절),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14절-20)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21절에서 31절까지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21, 22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심(23-29절), 성도의 언행 심사(30, 31절)에 대해 말합니다. 넷째 부분은 32절에서 40절까지로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의 최후와 의인의 누릴 복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 보는 짧은 안목으로 현재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될 것이며, 세상 끝날에 행하신 종국적인 공의의 보응을 소망하는 긴 구속사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27 (화) 죄를 고백함

본문/시편 38편 찬송/186장

다윗의 밧세바와의 간음사건(삼하11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엄중함을 직접·간접적인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시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원수가 대처하고, 친구·친척들이 떠나버린 사회적인 소외로 인한 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 생생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중요한 것을 느끼는 만큼 자신의 죄악도 실로 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5절에서 14절까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소외와 핍박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15절에서 22절까지로 징계를 받는 중에 회복한 여호와 신앙에 의거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함께 원수로부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상처', '피곤', '불안', '신음', '탄식', '심장이 뜀', 등에 대한 애절한 호소와 함께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15절), '나를 버리지 마소서' (21절), '속히 나를 도우소서' (22절)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심히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결코 그것을 간과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모든 경영은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이 본시의 교훈입니다.

본 시는 주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로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특히 언어사용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1-3절). 다윗은 인생이 사람의 보기에는 '손 넓이' 정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이 극히 짧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형통할 때라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사' 뿐이라고 했습니다(5절).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3절까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인간의 그 절망감을 극복 할 수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곤고함을 문제시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과 고통에 대하여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8절). 그리고 그의 고통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이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9-11절)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구역공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 공부에 대해서
(꼭 읽어 보세요 !)

① 2001년도 2월부터 구역성경공부시간에는 매 주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공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공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머물면서 -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한다.

나오면서 - 본문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을 생각해 본다.

② 먼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공과를 준비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③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주간충현' 에 실리는 다음 주일 설교의 내용을 읽으시면 구역 성경 공부를 더욱 효과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충현' 에 실리는 설교가 그 주간에 실시되는 금요구역예배의 공과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미리 제시되는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께서도 '주간충현' 의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의 답이 '설교'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교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구역공과는 저절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⑤ 구역성경공부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거나, 그 동안 배우거나 들었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수학문제처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삶에 열매를 맺게 하면 될 것입니다.

⑥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구역성경공부가 모임자체로 목적을 두는데서 벗어나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견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구의 지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말씀연구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실제로 예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1 과

옛적 길

(오늘의 성경공부는 2월4일 주일설교 내용입니다)

찬송 /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 렘 6:13-16

들어가면서

예레미야의 이름은 '주께서 지명하신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렘 9:1, 13;17). 그는 제사장으로 태어났고(1:1),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택함 받았으며(1:5), 선지자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고(1:7), 시기적으로 두려운 시대여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16:1-4).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11:18-21), 미움과 매를 맞았으며(20:1),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37:11-16). 그는 이사야처럼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한 때, 그의 성전 설교(7장)의 영향을 입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그의 설교는 자기들의 제도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외식적인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의 정곡을 찌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외치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관한 설교 이외에도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렘7:12-15, 21-13). 또한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는 장차 불필요

해질 것이라고 했는데(렘3:17-18), 그 이유는 모든 나라가 주님의 보좌를 인정하게 되는 날, 즉 구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다윗의 가지'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렘 23:1-8, 33:14-16).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하도록 부르셨을 때, 유다는 점점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으며, 40여년 이상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에 대해 유다의 반응은 냉담과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군대 앞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래 전에 애굽의 노예였듯이,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열왕기하 22장-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은 1:1-3에 잘 나타나는데, 요시야(B.C 640-609)와 여호아하스(B.C 609), 여호야김(B.C 598-597)과 여호야긴(B.C 598-597), 그리고 시드기야(B.C 597-586)와 포로 초기시대까지 사역하였습니다.

머물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본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2. 오늘 본문에는 각 절마다 '그들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들' 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① 13절 하반절 -

② 렘 1:18,19 -

3.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살펴보십시오.

① 탐남(greedy for unjust gain) -

② 심상히(superficially) -

[본문 중에서 16절에 나타난 '옛적 길'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본문에서 '옛적 길' 은 '유다의 경건한 선조들이 따르던 절대적으로 확실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옛적 길' 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① 신 32:1,2 -

② 딤후 3:16 -

③ 벧후 2:21 -

5. '옛적 길' 에서 떠났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① 시 14:1 -

6. '옛적 길' 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① 사 53:6 -

② 롬 3:23 -

7. '옛적 길' 은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① 요 3:4 -
   ② 요 3:5,6 -

8. '옛적 길' 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벌어질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①요 3:36 -
   ②롬 8:1 -

나가면서

세상에는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교회는 점차로 회원들의 필요성(the need)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본질이 변화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① 예배 -
② 찬송 -
③ 설교 -

교회와 신자에 대한 모든 기초는 성경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찬송, 설교, 예식 등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보다 시대적 문화나 전통, 그리고 인간의 사상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와 신자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며, 세상의 문화에 회석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표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즉 '옛적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제 2 과

쓸데없는 슬픔

(오늘의 성경공부는 2월11일 주일설교 내용입니다)

찬송 / 158장('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본문 / 막 16:9-11

들어가면서

본문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막 16;9). 즉 예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신 후, 사흘만인 지금의 주일에 부활하셨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광경을 마가가 아름다운 예술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 선택된 사람들, 즉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 각 개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픔을 견디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였고, 가르침을 들었으며, 삼 년 이상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마가가 우리

에게 표현하려고 했던 놀라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집중하여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머물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본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2. 본문 중 9절에 나타나는 '막달라 마리아' 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라는 명칭은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잡고 있는 작은 마을이름으로써,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던 동네 이름입니다(요 11:1의 베다니 마리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① 막 16:9 -
   ② 눅 8:2 -

[본문 중에서 10절에 나타난 '슬픔'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본문 중 10절에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광경이 보이는데,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구절들을 참고로 생각해 보십시오.
   ① 마 16:28 -

② 마 26:75 -

③ 눅 23 : 28 -

4. 제자들의 슬픔은 왜 쓸데없는 것일까요? 다음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말해 보십시오.

① 요 11:25 -

② 요 14:19 -

5. 제자들은 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여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게 매였다가 자유를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① 주님은 이미 ( )을 예고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에 대한 ( )이 없었다. 이들의 불신은 ( )이 되어버린 것이다.

6.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① 그들이 계속해서 ( )에 빠져있게 될 것이다.

② 막달라 마리아를 ( )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아니면 마리아를 보고 또다시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다).

7.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빌 3:11 -

② 마 9:24 -
③ 고전 15:52 -

나오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슬퍼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의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롬 8:18)?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롬8:17). 즉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으면 그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슬픔에 빠져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예수로 인한 기쁨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제 3 과

내가 알기에는

(오늘의 성경공부는 2월18일 주일설교 내용입니다)

찬송 / 97장('위에 계신 나의 친구')
본문 / 욥 19:23-25

들어가면서

욥은 몹시도 어려운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마귀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의 친척과 이웃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욥의 인생에 있어서의 시련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과 엘리후에 의해 논의되어진 대화는 위로 대신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는 적절하고 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욥을 위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욥에게 평안을 주기보다는 그를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실제로 비난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욥은 구속자에게 그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

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25절).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를 향하는 그의 믿음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는 장차 벌어질 일을 믿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구속자를 욥으로부터 배웁시다.

머물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본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2. '구속자' (the Redeemer)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는 판 것을 되사는 사람,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아주는 사람, 구제해 주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성경구절을 통해서 구속자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출 6:6 -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여' 주는 자
② 출 15:3 -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자
③ 사 44:22 - '네 허물' '네 죄' '도말' 해 주는 자
④ 롬 3:24 -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자
⑤ 엡 1:7 - '그리스도 안'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 '죄 사함' 을 얻게 하는 자
⑥ 계 14:4 - '처음 익은 열매'

[본문 중에서 25절의 '구속자'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본문 중,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의 구절을 통해서 정리하십시오.

① 롬 8:38 -

② 합 2:4 -

4. "나의 구속자"라는 욥의 고백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① 시 43:1 -
② 시 62:5 -
③ 사 38:14 -
④ 사 43:11 -

5.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① 히 2;11 -
② 마 28:10 -
③롬 8:35 -
④딤전 2:5 -

6. 구속자이신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① 계 12:10 -

나오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 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외면하거나 피하며, 심지어는 친구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를 쉽게 보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해 보십시오. 욥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더욱 굳은 확신과 믿음에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욥으로 하여금 장차 이 땅에 오실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됩니다.

① 욥 9:33 -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② 욥 16:19 -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③ 욥 19:25 - 내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이스라엘의 불행했던 과거가 오늘날 또다시 반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없어서 신앙의 왜곡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 4 과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곳이 있느뇨?

(오늘의 성경공부는 2월 25일 주일설교 내용입니다)

찬송 / 235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 요 8:31-37

들어가면서

오늘의 본문이 되는 배경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끌고 온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의 목적으로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6절).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구하신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예수께서는 진실로 어두운 삶을 살아온 음란한 여자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돌로 치려는 자들의 양심에 감추어진 죄를 비추셨고, 음란한 여자의 영혼을 비추셨습니다. 죄와 죄의 대가로 치러져야 할 죽음의 현장을 예수께서는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결국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30절).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31, 32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본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십시오.

2. 오늘의 본문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와 적용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이들이 가진 유대교 신앙만은 절대로 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① 34절(롬 6:17) -
   ② 눅 4:18 -

3. 예수께서는 32절과 36절에서 각각 '진리'와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①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는 곧 (　　)에게서 나온다.

[본문 중에서 3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37절을 잘 이해하십시오.

4.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라고 지적하시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진리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진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 가, 돌짝 밭, 가시떨기 밭은 모두 씨가 열매를 맺도록 자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땅에서만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씨가 열매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주어진 성경과 설명을 읽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시 119:11, 렘 15:16, 골 3:16

(설명 : 말씀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는 자들에게 열매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자신의 뜻 가운데서 어느 것의 지시대로 살아가십니까?

② 요 8:47, 마 7:24-25, 눅 6:46

(설명 : 말씀은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매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존경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말과 가치관보다도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삼상 15:29, 시 7:9, 딛 1:2

(설명 : 말씀은 진실한 자의 마음에 거하며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확실한 언약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말씀을 형식적이나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④ 요 15:4, 유 1:3

(설명 : 주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의 마음에 거하고 열매맺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자신이 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참된 주인은 누구이며, 누구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혹시 예수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주인은 자신은 아닙니까?

5. 그러나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지적하셨듯이 말씀을 듣지만 거할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목표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주해 하십니까?

②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 미신 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③ 말씀을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세상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혜로 성경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현명하고 문화적이며, 교육적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도 합니다.

나가면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 예수의 말씀에 대해 난폭한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한 말씀이 최후의 마지막 날에 도리어 여러분을 판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요 12:48).

잠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은 말씀이 거할 장소를 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에는 장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내리고 자라서 열매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 인도자
기　　도 ..... 인도자
주기도문 .....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0 과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

찬 송 / 276장
읽을 말씀 / 고전 9:23-25
외울 말씀 / 고전 9:25

마 23:13-15을 읽어봅시다.

마 23:13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 23:15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한 바리새인의 열심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5절)

2. 당신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벧전 5:8-9을 읽어봅시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9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

3. 영혼을 찾아 헤메이는 마귀의 열심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8절)

막 5:1-5을 읽어봅시다.

막 5: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막 5: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막 5: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막 5:4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막 5:5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4.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난 거라사인의모습은 어떠합니까?(2-5절)

5.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6.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혼을 향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마귀와 예수님의 관심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 봅시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향하여 보이는 당신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눅 9:23-25을 읽어봅시다.

눅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눅 9:24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눅 9: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7.우리는 흔히 한 영혼이 천하 보다도 귀하다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본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8. 당신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실 때에 정말 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아니, 당신 자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할 때에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요?

9.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요.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　도 ..... 다같이

주기도 .....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2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헌
· 집필진 / 만나 :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